

<총장 칼럼>



암초에 좌초된 세계 교회

권호덕 총장

지금 세계 교회는 여러 가지 암초(暗礁)를 만나 표류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 암초는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규범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해체주의(解體主義)일 수도 있고, 무신론에서 출발하는 진화론 또는 감각세계 저 너머를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물론, 영웅적인 인간을 신격화하는 범신론적인 풍조, 나아가 세계정복을 꿈꾸는 듯한 이데올로기적 이슬람 등이 그것이다. 유럽의 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관용이라는 미명아래 점령군처럼 들어와 자기 종교 문화를 펼치고 세를 확장하는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을 매우 우려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 한국교회가 만난 암초는 어떤 것일까? 우선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개독교로 선전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타종교인들도 기독교를 존중하던 초기 한국교회의 정황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리고 경건이 유익의 자료가 되어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배도적인 자들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나아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들이 암초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보수교단들은 신학적인 반성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암초로 보인다. 지금 교단들이 신봉하는 기존 교리들이 21세기라는 상황 속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 성경을 다시 주석하여 대답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로 보건대 한국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암초가 교회 스스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 사회지도자들이 저지른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비인간적

인 행태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멸시를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다가는 기독교인이 불과 삼사백만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암초 내지 지뢰는 교회를 경직시켰고 교인들은 물론 일반 사회인들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아 버려야 할까? 교회는 교회가 이런 위기에 당할 때마다 신학적인 반성에 앞장선 교회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지적한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필립 야콥 스페너일 것이다. 그에게는 6가지 경건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저서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인데 경건운동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종교개혁 신학의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교회 개혁에 나섰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교회 내의 개혁프로그램이었다. 즉 수많은 교회가 세속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나아가 서서히 확장함을 통해 교회를 변혁시키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운동은 서구 유럽은 물론 나중에 신대륙까지 영향을 끼쳤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누구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 어느 교회이든 종교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성령의 도움으로 스스로 변하고 나아가 한국 기독교회 전체를 자극하고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교회를 정상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른 말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노력한다면 스펜너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순장교단은 스펜너의 시도를 한번 실현해 볼 만한 입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 신학 전통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은 세상속으로 파도들어가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갖춘 신학이다. 막연한 보수주의는 결국 왜곡된 길을 갈 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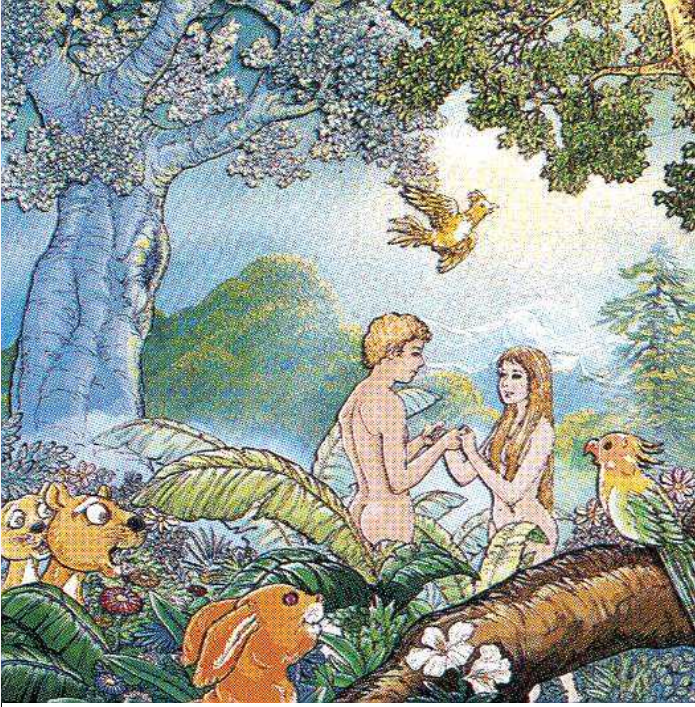


필립 야콥 스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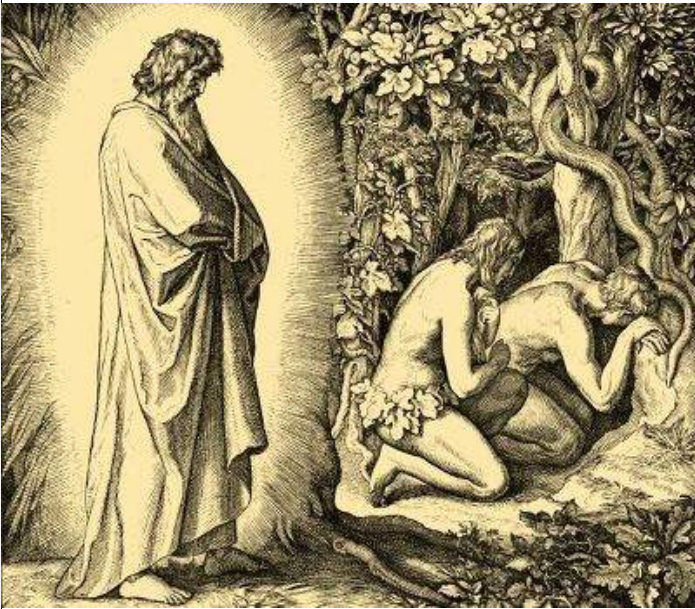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런 개혁운동이 전개될 때 앞을 가로막는 암초는 하나둘 없어질 것이다.

만일 이런 시도가 없다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적 세속문화의 발급에 짓밟히는 일을 초래할 것이다.

복된 가정



에덴의 가정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아담 가족



이삭의 야곱축복



유대인의 자녀 율법교육



복된 기독교인 가정

<학교소식>

1. 지난 4월 하순경에 목회신학대학원생들과 총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명문교 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질문을 던졌고 동시에 당면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 지난 4월 23일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중앙루터교회에서 '루터신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학회가 열렸습니다.
3. 지난 4월 30일(토) 본교 교수들은 백석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교회가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이루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4. 2016년 5월 10일 호주 시드니 대학 한국인 학부 학장(學長)인 김호남 박사가 내방하여 채플에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본교의 교수로 있었던 김세현 박사가 교수로 일하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와 양해각서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Sidney College Divinity)
5. 6월에 신입입생 모집 있습니다. 맨 뒷면 참조바람.

<기독지성인의 증거>

이어령 前 장관

“AI·과학 발전할수록 영성의 힘은 더 커집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목회포럼 조찬 강연에서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영성과 신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딸 민아 목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경험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의심과 탐구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진전이 없었다”며 “낮에는 무신론자로 바쁘게 살고, 밤에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

럼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흔들리다가도 AI와 알파고 현상을 보다보니 신앙심이 되돌아오고 있다”며 알파고 시대와 영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보였다.

그가 생각하는 영성은 결코 비과학적이고 비지성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영성이란 열린 문틈 사이로 왁자지껄한 파티장의 화려한 모습을 살짝 본 것같이, 한순간 번개처럼 왔다 가는 체험”이라며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영성이 없는 기독교, 교회는 복지단체와 다름이 없다. 그는 “영성이 없다면 기독교인이라 해도 윤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기독교는 그동안 이교도와 무신론자, 이른바 마귀하고 싸워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I의 눈부신 발전은 곧 유물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알파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결정만으로는 정치, 경제는 물론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며 “하나님에게 매순간 물으며 기도하듯이 컴퓨터의 운영체제(OS)에 물어보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에 각종 일정과 자료, 사진 등을 저장해두고, 실시간 대화와 채팅을 하며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 구글OS와 하나님 영성과의 치열한 마지막 결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학자들이 특이점에 다다른다고 예상하는 2045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매일 흔들리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에게 영성은 있는가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한 뒤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과 똑같은 시험대에 한국교회가 올라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교회가 없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요구처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도 많다”며 “지상에서 왕이 되라고 했는데, 현재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지상 왕국을 만들려는 유다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것이 영성과의 투쟁”이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의가 끝난 뒤 참석했던 목회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동성애 문제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침을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은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해주셨지만, 소돔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인공적으로 조작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는 멸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인간의 자유라고 적극적 가치로 옹호하는 건 그렇지만, 소돔성을 치려할 때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들을 붙잡고 버리면 안 된다고 끌어안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는 정의의 하나님에 사랑의 하나님이 더해지면서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었다”며 “치유될 수 없는 어떤 환자라도 품어줄 수 있는 톨레랑스를 기독교가 보여줄 때 소돔성은 구해진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예정된 강연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도 목회자들의 질문에 흔쾌히 답하며 시종일관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두 차례 암 수술을 받았다. 한 참석자가 83세의 나이에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건강유지 비결을 물었다.

그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며 “하나님께 건강을 맡기는 것이 나의 건강법”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알파고 현상과 지난해 한국사회를 위기로 내몰았던 메르스 현상을 주요하게 다룬 ‘한국인 이야기’ 첫 권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미션라이프)
글·사진=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구약주석>

이사야서 강해(7)

“심판 선고와 구원 약속 I”(9:8~12:6)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
앞 단원
7:1~9:7은
아 하 스 의
불신과 그
에 따른 하

- 개요(이사야 9:8~12:6)
- 1. 심판의 선고(9:8~10:4)
 - 2. 앗수르에 대한 심판(10:5~34)
 - 3. 메시아 왕국(11:1~16)
 - 4. 시온의 감사 찬송(12:1~6)

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있을 메시아의 출현과 그에 따른 구원을 묘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9:8~12:6 역시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는 흐름을 반복한다. 먼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9:8~10:4), 그 심판 이후에는 그 심판의 도구인 앗수르를 멸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제시한다(10:5~34). 그 다음에 제국적인 세력의 멸망 이후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11:1~16),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시온에서 부르는 감사 찬송을 묘사하면서 1단원(1~12장)의 막을 내린다.

1. 심판의 선고(9:8~10:4)

이 예언의 말씀은 4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은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 심판의 선고(사 9:8~10:4)
- 1. 대적을 통한 심판(9:8~12)
 - 2. 지도자 심판(9:13~9:17)
 - 3. 땅의 황폐(9:18~21)
 - 4. 압제자의 파멸(10:1~4)

여전히 퍼져 있
우리라”는 선언
으로 마무리 된
다(9:12, 17,
21, 10:4).

1) 대적을 통한 심판(9:8~12). 여기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곧 북이스라엘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3연에서 심판은 유다에게도 적용된다(9:21).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단지 북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심판마저 가벼이 여기는 교만이다. 즉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무서운 심판으로서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 치실 것을 선고하신다.

2) 지도자 심판(9:13~9:17).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작정하신다. 그 백성을 미혹한 길로 가게 한 불의한 지도자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그들을 따라 타락한 백성도 함께 심판하신다. 심지어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하나님은 공물을 거두신다고 선언하신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율법으로 정하셨다. 이는 그 공동체에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자들도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마저도 배척당할 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그 백성에게서 공물을 거두신다.

3) 땅의 황폐(9:18~21). 수풀에 불이 붙으면 온 숲을 삽시간에 태우듯, 죄악이 그 백성 가운데 만연해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 불처럼 그 땅과 백성을 태워버릴 것을 경고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 그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언약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한 양식을 얻지 못하며 서로 싸우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선고하셨다.

4) 압제자의 파멸(10:1~4). 두 번째 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장로와 선지자들이었다. 여기 마지막 연에서는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압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만, 그들의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 보다 더 처

참하게 망할 것을 경고하신다. 이와 같은 압제자의 파멸에 대한 말씀은 바로 다음에 오는 더 큰 압제자 곧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게 한다.

2. 앗수르에 대한 심판(10:5~34)

앞 단원은 하나님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대적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을

선언했다. 이 단원에서 그 대적은 앗수르임을 밝힌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자에게로 향한다. 이 단원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며(15~19절, 20~34절) 각 단원은 앗수르의 몰락을 의미하는 뿔뿔한 숲의 파괴라는 이미지로 마무리된다. 먼저 5~19절은 왜 하나님이 앗수르를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20~34절은 언약 백성을 위한 구원의 예언과 함께 신뢰할 것을 권고한다.

1) 앗수르의 교만과 심판(10:5~19).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앗수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상으로 나라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교만을 부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징계를 마치신 후에는 오히려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앗수르를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 강대한 제국 세력은 크게 쇠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앗수르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 36~37장에서 현실화된다.

구원의 약속과 권고(사 10:20~34)
남은 자 귀환(20~23절)
신뢰의 권고(24~27절)
앗수르의 정벌(28~32절)
앗수르의 쇠락(33~34절)

다. 그러나 그 구원은 모든 이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파멸을 통해 심판의 엄중함을 보이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 언약 백성을 유지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은 신뢰의 권고로 이어진다. 아무리 앗수르의

앗수르의 교만과 심판(사 9:8~10:4)
A. 진노의 막대기 앗수르(10:5~6)
B. 앗수르의 교만(10:7~11)
C. 여호와와 심판 선고(10:12)
B'. 앗수르의 교만(10:13~14)
A'. 앗수르의 쇠락(10:15~19)

세력이 위협적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세력을 꺾으시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8~32절은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위협하는 앗수르의 막강한 세력을 묘사한다. 그러나 레바논의 숲과 같은 그 엄청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찍혀 쇠락하게 될 것이다.

<교리설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마 1:18-25



김준범 목사(양의문교회)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열 두 조항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고백이 제일 첫 번째 조항이고, 두 번째 조항부터 일곱 번째 조항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부터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救贖)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救主)라 부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먼저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최선의 삶을 사신 모본으로만 알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6-7).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

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하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요 1:34).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 4:15)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5)라고 하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고 하셨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 5)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救主, Savior)라 부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우리 구주의 이름을 별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신앙고백 가운데 부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문답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두 말의 단축형입니다. ‘여호와 구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영원하

신 아들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짐과 구원을 받아야 할 곳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0-21).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이 아기를 위해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 곧 예수는 영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이요, 그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사귀어 있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 2:22)라고 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요일 4:3)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1:31).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믿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고전 1:30-31 참조). 모든 사람에게 이 보배로운 이름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구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주석>

에스겔서 주해(2)



에스겔 2:1-10

박영복 교수¹⁾
(구약학, Ph.D.)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 밖에 없다. 뜻밖의 하나님의 방문은 에스겔로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 이였다. 이사야서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사 6장)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바벨론 포로지의 그발 강가가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에스겔은 열떨결에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1장). 아마도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이였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인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이 자신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기를 원하셨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 위해 ‘네 발로 일어서

라’라는 말씀에도 어쩔 줄 모르는 에스겔을 성령이 일으켜 세우신다(2절). 그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도 그렇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자마자 먼저 사명부터 말씀하시는 것일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친 모세를 다독이는 말씀을 먼저 하실 수도 있었고, 패역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사 1:2-4)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건네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시자마자 이들에게도 대뜸 사명을 읊어주셨다(출 3장; 사 6장).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지쳐서 이제 포로생활에 적응할 법도 한 시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직도 열떨떨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필자가 묵상하기엔,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곧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인 것이다. 사명자는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커다란 위로와 경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시자마자 뜬돌이지 않고 사명을 전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인자야’(벤 아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다. 직역하면 ‘사람의 자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관점에서 ‘인자’는 유한한 존재(finite being)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mortal being)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mediator)의 의미가 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을 전하시면서 이 호칭은 세 번(3절, 6절, 8절) 언급되고 있다. 즉,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나의 백성’이라면, 이런 호칭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충격적이다.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2장에서만 ‘배반하다, 패역한, 패역하다’ 류의 단어들이 일곱 번 나오는 것을 주목하고,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²⁾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이신다. 먼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

1) 편집인 각주: 박영복 교수는 화란자유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본교에서 구약학 강사로 일하고 있음.

2)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4), p 67.

이 굳은 자'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신다.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들에게 보내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에스겔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의하면,³⁾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의 성취나 증험이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보내시어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다. 나중에 선포의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몰락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신앙시인의 수필>

자리 은혜 거리 은혜



이경아 박사(신원예닮교회)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은 모나지 않아 좋습니다. 다투지 않아 좋습니다. 돌아갈 줄 알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 간에 스며들어 좋습니다. 상대를 적셔주어 좋습니다. 갈라진 것을 운택하게 하여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아져 좋습니다. 많은 것을 품을 줄 알아 좋습니다. 보이는 것을 반사할 줄 알아 좋습니다. 낮은 곳에 머물 줄 알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낮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딱히 물 때문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리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열을 구분해서 앉아야 할 때, 저는 주로 말석에 앉습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리, 말석에 앉습니다. 어딜 갈 때에도 맨 뒤에 가는 편입니다. 제가 작성한 서류에 이름을 쓸 때에도, 맨 뒤에 또는 맨 아래 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저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올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배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중층에 앉아서, 예배당 정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앉아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이

계신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얼마동안 수돗물이 안 나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차가 와서 저 강대상 부근에서 물을 공급한다면 어떨을까. 그래도 1층보다 중층을 선호하여, 중층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곧 피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생명수 곧 물, 성경의 그것은 늘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수록 내려다보는 자리 곧 상석을 좋아하는 경향이 짙어 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은혜가 선착순이라면... 그래도 지상의 높은 곳과 뒷자리를 좋아할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처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자리은혜가 있듯, 거리은혜도 있습니다. 두 해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를 봐오셨던 어르신들은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거리가 먼 것만큼 부지런해야 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여 앞드리면 코 닿을 데 사는 사람들보다 일찍 예배의 자리로 나오니 반드시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감사한 것은, 오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모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자리은혜와 거리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오직 찬양에 집중하는 예배,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 그것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편도 두 시간이 걸리는 곳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가는 그 거리에서 말씀을 읽으며 뜨거웠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갈급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그저 감사뿐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보면, 병풍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빛이고 소금이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작위적인 몸짓으로가 아니라, 위선적인 언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향기로 그리해야 합니다. 물처럼. 물처럼.



3)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 18:22)

하나님은 누구신가? (14)

삼위일체론 강의(7)



이동영 교수(Dr. theol.)

교리교육의 중요성

필자가 조직신학자로서 한국교회에 대해 가지는 염려는 한국교회에 교리 무용론(無用論)이 팽배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유럽에서 귀국하고 지금까지 줄곧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교회는 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리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풍조도 단단히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참조. 도로시 세이어즈, 『기독교교리를 다시 생각한다』, IVP, 62). C. S. 루이스(C. S. Lewis)가 칭송했던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이며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는 자신의 당대에 자신이 속한 영국 개신교회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자신이 속한 개신교회를 가톨릭교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공동체인 반면에 자신이 속한 영국 개신교회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도로시 세이어즈, 같은 책, 62).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교회는 기강이 있고, 그 교리의 진리와 진실 앞에서 결의에 찬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와 개신교회의 교역자들은 무시를 받는 반면에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존경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 보도록 합시다.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신학을 너무 고집해서가 아니라 신학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단언하는 바이다” (도로시 세이어즈, 같은 책, 62).

세이어즈가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속한 개신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러한 사안들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선에서 조직신학을 교수하는 필자 또한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교리가 함의하고 있는 사상들은 절대로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교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유일한 일신(一神)의 존재가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며, 삼위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와 사귄 가운데서 본질과 의지와 사역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됨을 이루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온 세상의 고난에 참여시고,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고자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며,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셨음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는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성만찬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구태의연한 내용이 아니며, 이러한 교리에 대한 헌신은 우리와 이 세상에 놀라운 혁신과 변혁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리를 회복하고 교리에 대한 헌신을 회복할 때 교회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으로부터의 존경과 존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기원 없는 기원으로서 신성의 원천이시며, 성자와 성령은 각기 출생의 방식과 발출의 방식으로 성부의 신성을 소유하고 향유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강의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신지를 차례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부는 누구신가?

성부가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시기에, 여기서 성부는 일방적으로 남성적 표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여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성에 고착시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적인 사고를 하나님 이해에 투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시기에 자웅동체인가요? 절대로 그렇게 사유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논리에 근거한 발생론적인 사고를 신론에 투영하는 것은 이교적인 것이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아리안족의 피(혈통)와 땅을 숭배했던 히틀러와 나치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행했던 무서운 신학적 오류인 것입니다. 성부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적으로도 여성적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남성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으시기에 하나님은 여성적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출생을 고백했던 것은 아들의 출생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못박아 명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경이 아버지로부터의 아들의 출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이 생물학적인 관

점에서 사유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에 의존해서 사유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아람으로 당시 아기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르던 ‘아빠’(ABBA) 호칭과 함께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라고 부르심으로서 하나님이 예수의 자비로운 아버지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자신 사이의 ‘전대미문의 친밀성’(unerhoerte Intimitaet)을 드러냄과 더불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기(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 1신인 제우스가 남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적으로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한없이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마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또한 한없이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상인 것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과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성부로 그리고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신 구속주를 성자로 명명한 것은 두 위격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명명된 호칭이며, 이러한 호칭은 복음서에서의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인 ‘아빠’ 호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 즉 성부이시고, 그러기에 아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적인 도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하늘에 있는 대부의 이미지로 물고 가셔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격한 여성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성으로 물고 가셔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는 초월성적인 존재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남성 또는 여성 같은 ‘성적인 범주’(sexual category) 안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초월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성, 즉 남성과 여성의 도식 속에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리스 신화적이든, 로마 신화적이든, 게르만 신화적이든 어떤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교적 시도이며, 그러기에 심대한 오류를 함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주지시키고자 한 것이 제 12차 톨레도 공의회(XII. Konzil von Toledo)의 고백, 즉 “아들은 아버지의 모태로부터(de utero patris) 영원히 나셨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모태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는 제 12차 톨레도 공의회 진술은 성부를 남성적으로도 여성적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계속)

<신약주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과 “주” 칭호



장석조 교수
(신약학, 성경적설교연구소 소장)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창 1:1) 주 예수님으로 마친다(계 22:21).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과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계시하셨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칭호를 중심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주”,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 “주재”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호칭은 “하나님”(167회)과 “주”(107회)이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에 언급된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과 일관성을 보인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거의 3배 더 많이 언급하고(122회), ‘주’도 많이 언급한다(104회).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 부부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곧바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주’(1.6)와 연결된다. 제사장 사가랴의 성전 직무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1.8), 이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주’의 성전과 연결된다. 마침내 언약에 신실하신 ‘주’의 사자가 언약에 신실한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 응답하신다(1.11, 15). 누가복음의 주제를 암시하는 첫 문단(눅 1:5-25)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복음으로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정체성으로 마치고(1.19), 마지막으로 언급된 ‘주’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은 후 언약에 신실한 사람의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언약의 주님을 고백하는데 사용된다(1.25). 우리는 이 첫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제사장 부부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약속의 성취 1:1).

누가복음의 주제를 명시하는 둘째 문단(눅 1:26-38)도 1.6, 19를 상기시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1.26)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주 하나님’을 전파한다(1.30, 32, 35). 이 문단은 ‘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내용, 즉 언약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마친다. 첫 단락인 요한의 탄생 예고(눅 1:5-25)에는 기독교론적 칭호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1:6, 8, 16, 19)과 “주”(1:6, 9, 11, 15, 16, 17, 25) 칭호만 계속 언급될 뿐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둘째 단락(눅 1:26-38)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1:27)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다윗의 위”(1:32)를 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1:32, 35)로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언급된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문단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반응(눅 1:39-56)을 보여주면서 절정에 이른다. 이 문단에서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시하는 누가의 “주” 기록론(1:43)을 고백하고 마리아는 “주 하나님”을 “구원자”로 찬양한다(1:47). 특히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1:43)로 부른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기독교적 복음은 누가복음 전체를 도입하는 중심 주제이다. 하지만 누가는 요한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탄생도 “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마무리하고 이 주제는 계속 된다(1.25, 49, 51, 68, 72). 특히 ‘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능하신 이”이다. 누가는 ‘큰 일’ 등 출애굽 모형론을 상기시키며(출 14-15장), 예수님이 종말의 새출애굽을 이루실 “주”이심을 복음으로 선포하길 원한다.

누가의 신학을 대변하는 “하나님”과 “주”는 사도행전의 주제로 계속 된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나라”(행 1.3)에 나타난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주제를 명시하는 둘째 문단(눅 1:26-38; 4.43)의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 ‘하나님’도 모세 언약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행 2:11)에 나타난다. 이것도 누가복음의 세 번째 문단을 상기시킨다(눅 1:39-56, 특히 1.43, 49). 세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종말에 성취하신 큰 일을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행 2:17). 특히 사도행전 2.22-36에서 “하나님”(행 2.22)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눅 1.32; 3.22) 예수님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눅 8.39).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하고(행 2.22) 고난을 받게 하고(행 2.23) 죽음에서 살리고(행 2.24-32) 하늘로 올려서 성령을 주는 주님이 되게 하시는(행 2.33-36) 주님이시다.

누가복음에서와 달리, 사도행전에서 처음 언급되는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주체로 나타난다(행 1:6; 눅 17:20-22; 19:11-27; 24:21). 둘째 “주”도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으로서 사도들이 증언할 대상을 가리키며, “주 예수” 형태로 언급된다(행 1:21).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필수적 사역을 강조하기 하기 위해 비인칭동사 “해야한다”(눅 2:49; dei)를 처음 사용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 동사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모든 일들과 그 중에서도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도의 필수 조건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에 대한 가장 결정

적인 언급은 사도행전 2장 34, 36절이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주제이다(행 3.18-19; 4:33; 5:14; 19.20).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지상사역의 결정적 국면에 가르치신 가르침을(눅 20:42이하) 기억하고 계승하였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원래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초월적 선재의 ‘주’이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미래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은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고 현재와 미래에 계속 행하실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확실히 획득할 수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하나님”과 “주”칭호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성경읽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계소식>

총선 후 태풍이 몰려온다고 두려워 말라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4·13 총선 결과 많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집권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가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다.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개선거를 부르면서 정권 교체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외치면서, 우선 국민의당과 함께 세월호법과 국정교과서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이종윤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미래한국 상임고문

그들의 선거공약에도 없던 것들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몰려올 태풍의 먹구름을 예견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밋고 야당이 좋아서 국민들이 투표한 것으로 판단한 더민주는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천 과정에서 절차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결과 민주주의만 강조하는 추태를 보이면서, 국민을 무시한 새누리당을 제쳐놓

고, 그래도 친노(親盧) 패권주의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더민주에게-비록 호남지역에서는 예외였지만-전국적으로 그들에게 표를 준 것이다. 그들이 잘했거나 정책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국민의 지지로 보고 제일 먼저 국정교과서법 폐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결정했다 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좌편향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도록 국민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 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나라의 앞날이 크게 불안해졌고 나라의 상황이 급변한 지금, 애국시민의 할 일이 더 커져 국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 때에도 일제의 박해와 억압을 받고 있던 우리 국민은 대부분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굴종하는 삶을 지탱하고 있을 때, 먼저 눈을 뜨고 민족자결주의를 터득한 민족 대표 33인의 결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국민이 살아 있으면, 지도자 몇 사람들이 국가를 구령팅이로 떠밀고 갈 때, 새 길과 새 희망을 보여주면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나라를 구한 이스라엘의 모세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6)

골로새서 2:8-15절

최흥식 교수
(Ph.D., 신약학)

(헛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본문개관, 개요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8절은 골로새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이다. 둘째 단락인 9-12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성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업적을 노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 셋째 단락인 13-15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이야기한다.

거짓 가르침 8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 이단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므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세상의 기본적 종교원리 또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들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필요충분성을 굳게 믿고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9-12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성이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임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신성이 육체로 나타났다. 성육신을 통하여 신성을 실재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단적 가르침에 의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충만을 받았다. 육체의 할례를 통해 완전해진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해진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통해 죄의 본성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역사는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체험된다.

하나님의 구원 13-15절: 하나님께서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제하시고 도말하셨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를 통하여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절별주해

8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권고한다. 그는 그 가르침을 “철학”이라고 명명하는데 위에서 살핀바 대로 골로새 교인을 현혹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지칭한다. 물론 철학이란 말은 모든 종류의 사상과 지혜를 일컫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상을 의미한다. 또한 바울은 이 철학을 “헛된 속임수”로 폄하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미혹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바울은 이 철학이 인간적인 전통, 즉 유대교 전통에 근거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계시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진리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권면한다. 바울은 나아가서 이 철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철학을 부정한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해하기 난해한 말인데, “초등학문”의 원어는 “스토이케이아”로서 “요소”를 의미한다. 이 요소는 이 세상의 근본적 사상 종교 원리, 또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들(땅, 물, 공기, 불), 또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한다. 물론 이 단어의 광범위한 용례가 영적인 세력들을 지칭하지만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이단적 가르침과 스토이케이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에 근거해 이 세상의 사상적 그리고 영적 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절: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거한 가르침을 따를 것을 권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필요충분성을 제시한다.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며 신성의 충만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 즉 신성을 머물게 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이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났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나타나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실재로 계시하신 분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린 육체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음을 암시한다.

10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삶의 충만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골로새 교인들은 충만과 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으므로 거짓 교사가 전하는 충만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암시한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이 세상의 왕들과 정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통치자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는 말은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세상의 영적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또한 그 것들에 의거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권고한다.

11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통해 충만 또는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한다. 유대교에 의하면 할례는 언약백성의 정체성 표지이며 언약의 상징이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완전한 삶을 다짐하는 행위이다(창 17:1 참조).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통해 완전해 질 수 있다고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쳤을 것이다(갈 3:3 참조). 하지만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였음을 상기시킨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인간의 악한 옛 성품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육”(헬- 플레쉬)은 인간의 육체를 지칭한다(골 1:22 참조). “그리스도의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할례라는

은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같이 그들을 다시 살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고백하였으며(갈 2:20 참조)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12절: 바울은 육적 몸을 벗는 것,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엄격히 말하면 침례)라는 은유를 통해 재설명하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장사와 부활을 상징한다. 물 아래로 내려갈 때 땅 아래로 묻히는 것이며 물 위로 올라올 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롬 6:4-6 참조).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경험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다(골 3:9-10 참조). 이 사건은 세례를 통하여 발생되며 현재적으로 새 시대의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비적 체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믿음은 초대 기독교 신자들의 주요한 신앙이었다(롬 4:24; 고전 15:15; 갈 1:1; 살전 1:10 참조). 신자들은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그 사건의 축복들을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13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셨다고 강조한다.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통해 그들은 죽음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인 골로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죄의 삶은 사망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표지인 할례(창 17:10-14 참조)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명을 약속으로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못되었다(엡 2:11-12 참조). 그들의 결국은 심판과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요 5:21; 롬 8:11; 고전 15:22; 벧전 3:18 참조). 하나님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무할례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진다.

14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목 기록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제하시고 도말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 죄목들을 기록한 책을 일컫는 말이다. 법조문은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죄목 기록부는 죄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불리하게하고 속박하는 문서인 것이다. 모세의 율법 조문은 죄인들을 죽이고(고후 3:6) 저주한다(갈 3:3).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목 기록을 다 지워버리셔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 죄목 기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도말하셨다. 계약문서를 못박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표식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목 기록을 말소시키신 것이다.

15절: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로마 개선장군의 개선행렬의식 장면을 비유로 삼아 설명하고 있다. “이기셨느니라”로 번역된 단어 트리암뷰오 동사는 원어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개선장군의 승전행렬로 이끌다”를 의미한다. 로마 개선 장군의 승전행렬의식에 따르면 장군이 포로로 잡은 자들을 무장해제 시켜 행렬가운데 진행하게 함으로써 개선장군의 승리와 적군의 패배를 공개적으로 황제와 많은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알리었다. 하나님은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 시키셨다. 그들의 옷을 벗기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 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패배한 그들을 백일하에 노출시키시어 하나님의 승리와 그들의 패배를 널리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영적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세력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고전 1:18 참조).

<선교신학>



배춘섭 교수
(선교학, Ph.D.)

IV.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SLSW)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기초한다. 구약성경에서 ‘거룩한 여호와와의 전쟁’의 개념은 전쟁의 주권자가 이스라엘이나 개인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시사한다(시24:8; 사42:13; 습3:17; 삼상17:45).⁴⁾ 그래서 구약은 용사로서 전쟁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묘사한다(출15:3).⁵⁾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전쟁은 신약성경에서 언약이 성취된 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서 글라서(Arthur Glasser)는 구약에서의 전쟁방식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승리적 통치가 일어나는 영적인 나라로서 그는 소개한다.⁶⁾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인간과 지역 귀신과의 능력대결로서의 전쟁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SLSW의 신학적 쟁점들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사단의 정체

- 4) Marc Zvi Brettler, “Images of YHWH the Warrior in Psalms,” *Semeia*, 61 (1993): 135-165.
- 5)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Berlin: Gruyter, 1989), 246.
- 6) Arthur Glasser, *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역,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145-146.

SLSW가 인식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과 귀신들의 활동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악령에 관한 인식론(epistemology)은 결국 인간의 비윤리적 책임소재를 불식시켜 버린다. 결국 능력대결로서 사단과의 현상학적 전쟁에 관한 지나친 집착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순종보다 신비적이며 미신적으로 변질시켜 버릴 위험이 있다(벧후1:10). 따라서 영적 전쟁의 대상을 사단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⁷⁾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의 내면적 죄이며, 그 죄를 부추기는 사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죄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죄는 실제적인 악이다. 둘째는 죄는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특별한 악으로서의 증상들(죽음, 질병,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다. 셋째는 죄는 도덕적인 악으로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 본성으로 나타내신 창조목적과 섭리와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특성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정의한다.⁸⁾ 이런 죄의 세력은 인간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을 심각하게 행사한다. 인간을 향한 죄의 지배는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로 나뉜다. 절대적 지배란 불신자들이 항상 죄의 지배 아래 절대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상대적 지배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할 때에 상대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SLSW의 지역 귀신들과의 전쟁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귀신들림

찰스 크래프트는 원래 귀신이 모든 사람에게 침투하여 그의 인격과 삶을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영혼까지는 침투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서에 침투하여 혼란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⁹⁾ 뿐만 아니라, 저주의 경로도 귀신초청, 유전적 전이, 저주 행위, 물건접촉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이 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런 그의 주장은 성경을 통해 입증

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주술적 지역들(Occult areas)에서 정령숭배적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얻어진 경험론적 이론이라 일컬을 수 있다.

하지만 접촉에 관한 주술적 방식과 성경의 증언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능력전달을 위해 주술은 접촉이 조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호교류나 의사전달을 위해 선택한 상징적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의 능력전달은 단순히 물체자체나 물체의 전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은 기적과 능력전달의 근원을 하나님 한 분으로 묘사할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귀신들림이나 접촉을 통한 능력전달 등의 주술적 요소를 그리스도인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주술적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망각하게 되고 개인의 경건생활을 실패하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남준은 그리스도인도 귀신들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죄와 사단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주인의 동의 없이는 그를 지배하거나 귀신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죄악 된 생각이나 그릇된 유혹을 넣어 줌으로써, 그를 상대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둔다면 죄는 무서운 속도로 마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마음 속의 도덕적 선택권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데 있다. 주권을 빼앗긴 채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용서, 사랑과는 멀어진 파괴적 인생을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마음을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거듭 강조하지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와 반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뿐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악행도 감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욥1:6-12; 12:1-6).

8) John Murray, "Nature of Sin," in *Collected Writing of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6), 77-79.

9) Charles Kraft, *Deafering Dark Angels*, 윤수인역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서울: 은성출판사, 2006), 88.

10) *Ibids.*, 98.

11) 김남준, 『죄와 은혜의 지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30.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 2016년 6월 13일(월)~7월 5일(화) 전형일: 7월 6일 2.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건의학’,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건축학’, ‘성경의 역사관’, ‘존 밀톤의 실낙원에 나타난 구원관’, ‘토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에 나타난 인간이해’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 4. 평생교육원의 특징 -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 마다 1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은 구역장 교육에 매우 좋음 -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설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 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 명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 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